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정수빈	직급	부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국제행사 주최 ☐ 세미나, 교육, 훈련 ☒ 국제행사 참가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관련사업 ○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 모형 개발」(수탁사업) ※ 주요 목적 ○ 수산분야 일반균형모형 활용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글로벌 관점의 일관된 주요 수산부문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가능성 제고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출장기간	2023. 12. 5. ~ 2023. 12.10 . (4박 6일)			출장지	프랑스 (OECD)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12.5(화)	부산→인천(07:55~09:05)	항공 이동		KE1410	
		인천→파리(12:10~18:30)	항공 이동		KE901	
	12.6(수)	OECD STID	모형 설명 및 협의 데이터 세분화 관련 논의		프랑스 현지 체류	
	12.7(목)	OECD	오전: BGC 정기회의		프랑스 현지 체류	
			오후: BCG 워크숍 세션1			
	12.8(금)	OECD	오전: BCG 워크숍 세션2		프랑스 현지 체류	
			오후: OECD STID 운영위원회			
	12.9(토)	파리→인천(21:00~17:05)	항공 이동		KE902	
	~12.10(일)	인천→부산(19:35~20:45)	항공 이동		KE1427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수산분야 일반균형모형 활용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하고 글로벌 관점의 일관된 주요 수산부문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출장의 주요 목적을 달성함 ○ 주요 성과 - 수산어획 및 양식분야의 세분화를 위한 데이터 이용의 주의사항 및 사용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논의해서, FTA 수산부문 모형 적용시의 데이터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향후 모델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출장보고서 바탕으로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 모형 개발」(수탁사업)) 연구진과의 내용 공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 모형 개발」 후속 연구에서 모델 발전방향 검토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주요 업무 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12..6(수) OECD 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모형 협의
수행계획	□ 면담 질의 내용 (오후 13:30~15:45) - 면담자: James Jolliffe (Economic Researcher of ocean economy group), Claire Jolly(Head of ocean economy group, Innovation Policies for Space and Oceans Unit) · 수산부문 일반균형 모형 구축 결과 설명 · 수산부문 데이터 세분화 관련 모형 적용방안 논의 · OECD의 향후 일반균형 모형 발전 방향(활용 가능성) 논의
수행결과	- 면담자: James Jolliffe (Economic Researcher of ocean economy group), Claire Jolly(Head of ocean economy group, Innovation Policies for Space and Oceans Unit), Marit Undseth(OECD Space Forum STI), JEONG IN CHANG(OECD,KMI) 1)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모형 소개 - 수산부문 데이터베이스 개발부문 소개, GTAP 및 FAO 데이터 베이스 활용한 기초데이터 분할 과정 소개 - 24년 이후 수산모형 개선 계획 관련 데이터베이스 세분화를 위한 전문가 협력 필요성 강조 2) 수산부문 세분화 관련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논의 - OECD는 현재 STAN 데이터에서 수산어획과 양식을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으나, 수량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음, 가격과 수량을 모두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현재 FTA 수산분야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FAO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3) 일반균형 모형 발전 방향 관련 논의 - 현재 OECD에서는 해양경제 측정시에 수산과 양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양식과 어로어업의 경우 생산함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임 - 양식의 경우에는 수산어획과 기본적으로 생산의 투입구조(사료 및 유류비 등)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 및 산출액도 다르므로 이를 반영해야함 - 또한 시장가격 측면에서도 수산어획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에 차이가 있음 - 한국 및 캐나다의 경우 SUT에서 어로어업과 양식을 구분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OECD에서는 METRO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효과 분석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CGE모형이며, GTAP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GAMS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된 모형임 - Metro모형은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과 기술 및 요소변화, 투입재의 변화 분석은 물론 관세효과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중간재, 가계, 소비, 정부, 투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최근에는 METRO-PEM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OECD TAD에서 개발했는데, 이는 정책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CGE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PEM(policy evaluation model)은 정책평가모델이며 2000년대부터 농업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된 부분균형모형임 - METRO-PEM은 두 모형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며, PEM으로부터 얻어진 세부적인 정책균형

주요 업무 내용 (계획(), 결과(√))

	을 METRO-CGE모델이 반영하는 역할을 함  
업무②	12.7(목) BCG 정기 및 BCG 워크숍 참석
수행계획	□ BCG 사전준비 회의(오전 9:00~10:00), 정기회의(오전 10:00~12:30), BCG 워크숍 세션1(오후 14:00~16:30) 참석 - 참가자: Monica Grasso, Koner Franks(BEA), Cristina Neves(Statistics Portugal), OECD(Claire Jolly, James Jolliffe) 외 - 해양경제활동 측정시 사용하는 주요 데이터 및 국민계정 시스템 통계와 연계하기 위한 방법 논의 - 수산부문 식별을 위한 데이터 세분화 관련 논의(FAO 통계, 수출입 통계 등)
수행결과	- 참가자: OECD(Claire Jolly, James Jolliffe, Marit Undseth) JEONG IN CHANG(OECD, KMI), 정수빈(KMI), Kjersti Turid Fjalestad(The Reserch Council of Norway), Gert Verreet(Vlaanderen), Martine Grimstad(Norway), Koner Franks(BEA) 외, 온라인 Monica Grasso(BEA), Cristina Neves(Statistics Portugal), 권장한, 김주현, 김태진, 김성은(KMI) 외 - 해양수산 분류 및 위성계정 등을 활용한 해양경제 측정 및 해양수산 통계 생산, 생태계 서비스 세 가지 대 주제 안에서 그룹별로 논의해야할 소주제를 결정하고 그룹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 - 한국, 미국과 노르웨이, 아일랜드의 해양경제 측정방안에 대해서 발표 및 토의 - 한국은 SUT를 활용해서 해양수산 위성계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5~2019년까지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수산부문은 수산물생산, 가공, 유통으로 나뉘며, 수산물 생산에서도 양식어어로어업 구분 가능함 - 수산부문 세분화 위해서 국제적으로 FAO통계, 수출입 통계 사용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전세계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이들 데이터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주요 업무 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12.8(금) BCG 워크숍 참석 및 STID 운영위원회 참석
수행계획	□ BCG 워크숍 세션2(오전 10:00~12:00), OECD STI 운영위원회 회의(13:30~15:30) - 참가자: Monica Grasso, Koner Franks(BEA), Cristina Neves(Statistics Portugal), OECD(Claire Jolly, James Jolliffe) 외 - 수산부문 세분화를 위한 기업통계 등록부 활용 통계조사 활용 가능성 논의 - 수산부문 세분화를 위한 기준(Classification)논의 * 수산물 어업별(양식, 어로) 생산금액과 생산량 데이터 확보 방안
수행결과	- 참가자: OECD(Claire Jolly, James Jolliffe, Marit Undseth), JEONG IN CHANG(OECD, KMI), 정수빈(KMI), Kjersti Turid Fjalestad(The Reserch Council of Norway), Gert Verreet(Vlaanderen), Martine Grimstad(Norway), Koner Franks(BEA) 외, 온라인 Monica Grasso(BEA), Cristina Neves(Statistics Portugal), 권장한(KMI) 외 - 한국, 포르투갈, 미국, 노르웨이의 기업통계조사 발표 - 한국은 통계청 승인 받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수행중이며,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업에 대해서 기업통계조사를 수행함 -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수산양식과 어로어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 포르투갈은 수산양식과 어로어업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OECD도 생산량에 대해서는 수산과 어획을 구분한 통계가 존재하나, 해양경제 측정 시에는 수산부문을 통합해서 측정함 - FAODE이터가 현재로서는 수산과 양식을 구분하며, 전 세계 국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생산량뿐만 아니라 금액까지 제공하는 데이터임 - 어로어업과 양식을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생산함수가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로어업과 양식의 생산함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SUT에서 수산과 양식이 구분이 되어 있는 국가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투입 구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